

2019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세계 기도 주간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인간 그리고 평화로운 상생”

배경:

세계교회협의회는 매년 국제평화의 날(9월 21일)을 전후로, 회원교단과 각 지역 교회 및 에큐메니칼 협의체와 함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하여 예배와 교육활동, 공동행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짜: 2019년 9월 15(일)-22일(일)

주제: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인간 그리고 평화로운 상생”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갈등과 불의는 전 세계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의 모든 생명과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은 부정되고, 이 지역 사람들의 미래를 향한 소망은 좌절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동등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팔레스타인은 군사 점령과 차별적 관행, 충돌이 지속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인정하고 유대인의 자주적 결정권을 존중하듯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 그들이 1967년 이후 점령된 영토에서 자주 국가를 이루고 자결권을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두 민족과 세 신앙공동체가 공유하는 도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유대주의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죄로 규정하며, 마찬가지로 민족, 인종 그리고 종교에 기반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차별, 인간소외, 집단제재, 폭력 등 하나님과 인간성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해야 합니다.” (2019년 5월, WCC 실행위원회,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연대 공식 성명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신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소명이자 우리 모두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 평화는 폭력과 유혈사태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사람들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통제해서 얻는 평화가 아닌, 정의에 기반한 평화입니다.

이 주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 낙인 찍기, 그리고 대중에 영합하는 정치에 의해 발생하는 배제의 문화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선한 의지를 가진 세계시민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기도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해 민족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회복하고,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갈등 상황 속에서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양도할 수 없는 인권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 긴급합니다.

관련 성서구절

창 1:26-28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창 2:15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막 12:31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갈 3:28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행 10:34-35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눅 4:16-19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서를 읽으시려고 일어서서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 들고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는 대목을 펴서 읽으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 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막 2:27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히13:1-3

“형제들을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도문:

인도자: 하나님, 불의와 두려움, 극심한 폭력으로 떨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 대신 의심을, 불안정한 삶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 께: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새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땅 위에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인도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지쳤으며, 무고하게 감옥에 갇힌 양심수(정치범)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져 기약 없이 헤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평생을 일궈 온 고향에서 쫓겨나 절망하고 있고, 아이들은 폭력의 위협을 받으며 학교에 갑니다. 농부들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는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함 께: 하나님, 저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여 주소서. 억울하게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아이들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소서.

인도자: 하나님, 절망과 좌절로 인해 모든 이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으로 폭력을 선택하기도 하고, 부모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갚지 못할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함 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일상적인 점령으로 고난 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소서. 매일 갈등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들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희망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당신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인도자: 하나님, 저들은 총탄, 칼, 최루가스과 수류탄 등 전쟁무기에 의한 통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는 끊임없이 폭력을 유발하고 있고, 절망에 빠진 이들은 공허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함 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소서. 팔레스타인 땅의 점령을 종식시켜 주시고, 사람들이 평화실현을 위하여 비폭력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평화를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에게 힘을 주소서.

인도자: 자비하신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가 서로를 향한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주 안에서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자매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권력자들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시어 거룩한 땅 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소서. 아이들과 젊은이들, 부모들, 정치인들과 감옥에 갇힌 이들, 그리고 무장 세력들에게 주의 자비와 성령을 내려주소서.

함 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평화로 채워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일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는 이들을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인도자: 억압당하고 쫓겨난 이들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지금 오늘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독립된 이웃 나라로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소서. 상생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기쁨과 신뢰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함 께: 아멘.

목상을 위한 메시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래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귀한 존재라는 인식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든 인류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인종주의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를 참되게 사랑하는 삶과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 일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삶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WCC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총무 “당신의 시야와 마음을 넓히십시오. 상황을 변화시키십시오. 불안정한 상태를 바꾸십시오. 이 땅에는 우리 모두를 위해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동등한 존엄성과 평등을 갖게 하십시오. 점령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두 민족은 서로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상생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정의평화위원회 - 2017 비전

증오와 폭력으로 인해 굳어진 마음과 힘과 두려움으로 인해 좁아진 시야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길로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 주신 존엄과 가치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존중 받는 길입니다.

“폭력과 분열의 한 가운데에서도, 에큐메니칼 운동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소망, 믿음과 사랑, 지지와 연대를 추구해 왔습니다.”

**2017년 6월, WCC 중앙위원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과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성명서**

“세 가지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두 나라(팔-이)가 공유하는 하나의 도시인 예루살렘은 상호 존중 속에서 평화롭게 상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2013년 10월, WCC 부산 총회,
중동지역 기독교인의 존재와 증언에 관한 성명서**

[추가자료] 기도문

1. 인류와 정의를 위한 기도

은총으로 물 향아리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소서. 오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 우리가 기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리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어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평화를 전하게 하소서. 생명을 채워 주시는 주님, 우리를 정의로 채워 주소서. 우리가 모두를 위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어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가 모든 창조세계 및 모든 인류와 함께 정의와 평화, 화합과 박애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2. Patriarch Emeritus Michael Sabbah의 기도 (미셸 사바 예루살렘 명예 총대주교)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존엄하고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인류를 우리의 자매요, 형제로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당신의 자녀이자, 당신의 손으로 창조된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의 아픔을 돌보아 주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극심한 갈등과 분쟁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임 당하는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아에 시달리며 정의와 평등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땅과 지역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억압하는 권력자들이 불의를 멈추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땅에서 정의와 평화, 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